

# 社會心理學의 方法論 論爭

—그 소개 및 韓國의 社會心理學에 던지는 意味—

閻 庚 煥\*

<目次>

- |                      |                             |
|----------------------|-----------------------------|
| I.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正體     | 2. Moscovici와 社會表象          |
| 1. 機械論的 人間觀          | 3. Gergen과 社會合理主義           |
| 2. 自然科學의 模倣          | III. 한국에서의 사회심리학 연구<br>의 방향 |
| 3. Universal의 追求     | 参考文獻                        |
| II.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接近들   |                             |
| 1. Harré와 Ethogenics |                             |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의 사회심리학이 현재 Kuhn(1962)이 말한 이론바 '正常科學(normal science)'의 평온함을 누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第二次世界大戰을 起點으로 한편으로는 Lewin, Heider 등 著名한 독일 심리학자들의 流入과 다른 한편으로는 설득, 태도변화, 集團力動등에 대한 지식의 필요에 힘입어 美國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사회심리학은 1960년대에 이르러 Festinger의 認知不調和理論(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둘러싼 활기찬 논쟁을 비롯, 많은 이론과 연구의 등장으로 심리학 內에서 가장 급속한 팽창을 가져온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직도 量的 팽창에 따른 흥분과 낙관적 전망들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연 지금까지의 사회심리학이 인간의 社會行爲의 理解에 얼마나 공헌을 하였는가?'라는 本質的 질문을 던지는 사회심리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自己反省은 두갈래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研究方法論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제에 관한 것이다. 前者は 論理的 實證主義에 근거한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硬直된 연구방법, 특히 실험연구에의 偏重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지고 後者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들을 무시한 채 연구영역을 이론의 檢證에만 국한시켜온 데 대한 항의로 集約

\* 서울大 社會大, 心理學

될 수 있다. 그리하여 方法論에 있어서는 영국의 Harré, 프랑스의 Moscovici, 미국의 Gergen 等의 主導로 사회심리학의 전통적 paradigm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 paradigm을 定立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主題에 있어서는 사회심리학자들의 관심영역이 사회차별, 범죄, 마약, 알콜, 환경 等에도 확장되어 가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概觀해 볼 때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rope에서는 새로운 사회심리학에 대한 論議가 열띤 가운데 性格 탈바꿈의 기운이 왕성하고, 반면 미국은 전통적인 실험사회심리학이 여전히主流를 이루면서 사회심리학자들의 일상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응용분야에의 진출이 현저한 것이 그 특징이다.

本稿에서는 사회심리학의 方法論 論爭에 그 초점을 맞춘다. 엄격히 말하면 方法論과 主題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사회심리학에서의 방법론의 논쟁은 다루는 主題의 확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方法論에 초점을 맞춘다 험은 하나하나의 主題들에 대하여 일일히 언급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사회심리학적 主題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方法論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여러 입장들을 살펴봄을 뜻한다. 이는 사실상 사회심리학의 正體(identity)를 再定義하려는 本質의 물음의 성격을 담고 있다. 本稿에서는 우선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모습을 概觀하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최근에 전통적 paradigm에 대한 代案으로서 提議되고 있는 소위 ‘새로운 사회심리학’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끝으로 이러한 方法論상의 논쟁이 한국이라는 (特定)局所社會에서의 사회심리연구에 어떤 意味나 方向摸索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吮味해보려고 한다.

## I.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正體

사회심리학은 심리학 중에서도 젊은 분야(young area)로 지칭되지만 사실상 그 年輪은 실험심리학의 탄생(1879년)으로부터 크게 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Wundt의 民族心理學(Völkerpsychologie) 第一卷이 나온 때가 1900년이며 또한 이미 1908년에 W.McDougall과 E.A.Ross는 각기 ‘사회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Wundt의 Völkerpsychologie는 그의 실험심리학적 업적과 달리 훗날의 사회심리학의 형성에 微微한 영향을 미쳤을 뿐이며 (Boring, 1929), McDougall과 Ross의 著書도 역사적 가치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위 '전통적 사회심리학'은 현재(적어도 미국에서는)主流를 이루고 있는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여 選好되고 있는 主題와 연구방법의 독특한 正體를 갖기 시작한 시기, 즉 Lewin의 사회심리학과 미국의 경험주의 및 실용주의의 만남이 일어난 1930년대로 그起源을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성격을 지닌 사회심리학의 역사는 50년 남짓하다. 이러한 소위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正體는 Gordon Allport(1968)의 古典的 定義에 따르면 '실제의, 상상의, 혹은 牡시적인 他人의 존재에 의하여 개인의 思考, 感情 및 行動이 영향받는 樣式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努力'으로 표현될 수 있다. 위의 定義는 심리학자들의 개인주의적인 指向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심리학의 사회과학적인 성격보다는 심리학으로서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 方向定立이다. 왜냐하면 이 定義에 따르면 첫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중에서一方的인 영향(사회→개인)만을 문제삼았고 둘째, 개인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의 사회도 사회자극으로 單純還元된 형태에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심리학이 일반심리학과 다른 점은 행동주의의 자극-반응 고리에서 (일반)자극을 사회자극으로 대체한 것 뿐으로서 사회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십대상인 사회현상이나 文化 등 巨視的, 全體的, 歷史的 接近을 요구하는 영역에 대하여는 냉담에 가까운 태도를 지켜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定義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전통적 사회심리학'은 그 人間觀이나 方法論에서 아래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 1. 機械論的 人間觀

인간의 파악은 두 극단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을 기계와 같은 被動體(automaton)로 간주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自律的인 行爲者(autonomous agent)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Aristotle과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라 과학자임을 자부하는 심리학자들은 기계론적 인간관을 취한다. Locke의 生得的 관념의 否定, Hume의 복잡한 관념들을 단순한 인상들의 연합으로 설명하려는企圖, 그리고 J.S. Mill의 마음을 生理的 법칙에 의하여 受容된 감각들의 축적으로 보는 입장등은 인간이 다만 被動的으로 외부세계를 기록하는 器機에 불과하다는 人間觀의 형성에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다. 만약 심리학이 大陸의 合理主義, 觀念哲學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해 왔다면 행위의 主體者로 인간을 인식하는 입장이 현재의 심리학을 主導하고 있을지도 모른다(Gergen, 1982). 왜냐하면 Kant의 시간, 공간, 因果관계 등의 지식에 대한 先驗論의 입장은 비롯, Spinoza가 지식을 경험이 아닌 前提(propositions)로부터 연역하여 얻으려한 시도나 Schopenhauer가 意志를, Nietzsche가 權力에의 意志를 中心概念으로 강조하는 등 大陸의 철학적 전통은 의부세계나 경험보다 先驗的인 것, 人間 內的인 것들을 존중해왔기 때문이다.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파악하느냐 혹은 自律的인 行爲者로 보느냐는 인간에게 反省的(reflexive) 능력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을 자율적인 행위자로 파악하는 입장은 인간이 동물과는 質的으로 다르다는 前提로부터 출발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흔히 기억, 도구의 사용, 知能, 분별과 결정의 능력 등의 차원에서 파악되나 Scheler (1928)에 의하면 이들은 정도의 차이일 뿐 質的인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인간과 동물간의 진정한 차이는 反省(reflexivity)의 능력이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Alfred Schutz를 인용하면,

…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행위의 진행과정 속에 살고 있기도 하고, …혹은 진행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反省的인 눈길로 이전의 과정에서 수행된 행위를 바라보기도 한다…(1968:64).

이 反省의 능력은 인간에게 자신의 관찰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동시에 인간이 생물학적인 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內的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Mead, 1934). Scheler(1928)에 의하면 인간은 환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定義는 필연적으로 연구방법의 선택, 설명이론의 성격, 現實社會의 과학 및 理想社會의 설정 등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機械論的 人間觀은 실험장면을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실험연구를 그 主된 연구법으로 채택하게 되고 행동의 변화를(심리과 정보다 우선하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부세계(혹은 의부자극)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S-R이론(혹은 新行動主義에서의 S-O-R 이론)이 규범적인 설명이론이 된다. 또한 이 觀點은 Skinner에게서 볼 수 있듯이 神話, 종교, 언어 등 인류문화를 도구적 조건형성에 의하여 설명하고(Skinner,

1971) 人間工學的인 조작에 의하여 utopia를 설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낳기도 한다(Skinner, 1948).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機械論的 人間觀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이 人間觀이 갖는 負的인 도덕적 함축성 때문이다(Harré et al., 1985). 인간에게서 자유와 책임을 박탈하여 인간을 궁극적으로 환경에 의존하고 마음대로 통제될 수 있고 창의성이 否定되는 존재로 파악하는 人間觀은 인간존중(humanism)의 思考가 內面化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기계론적 인간관을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계론적 인간관은 사실상 인간행동의 일부분 밖에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인간은 때로는 꼭두각시이기도 하고 때로는 행위의 主體者이기도 한데 無意識的, 自動的 흐름에 따라 행동할 때에는 前者가 되고 외부세계 및 自己를 意識에 떠올려서(즉 反省하여)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여 수행할 때에는 後者가 되기 때문이다. Harré(1979)는 사회심리학이 지금까지 自動的인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왔음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실험에서 意圖(intention) 혹은 反省의 개입은 피험자 통제의 실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Harré(1972)는 뒤에서 論議한 ethogenic approach를 소개하면서 그 기본적인 人間觀으로 擬人觀的 模型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기계론적 인간관은 인간이 동물이나 기계와 質的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인간연구에 제약을 주고 있으며, 보다 과학적인 인간연구는 인간의 固有한 능력을 인정하는 擬人觀的 模型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2. 自然科學의 模倣

흔히 Wundt를 실험심리학의 아버지인 동시에 특히 사회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Wundt는 그의 後期의 약 20년 간을(1900~1916) Völkerpsychologie의 著述에 바쳤기 때문이다. Gergen(1982)에 의하면 사회심리학자로서의 Wundt는 실험심리학자로서의 Wundt와 뚜렷이 구별된다고 한다. 즉 Wundt에게 있어서 사회심리학의 지도적 metaphor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역사적 분석이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심리학자의 과제는 심리적 기능의 일반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現存하는 행동 pattern의 발달을 文化史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물론 心理學史에서 기억되는 Wundt

는 실험심리학자로서의 Wundt이며 그의 사회심리학은 그 후의 사회심리학의 학문적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가 자연과학적 世界觀에 의하여 主導되고 있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심리학의 성격 확립에는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合理主義的 觀念論의 배경을 가진 Lewin의 形態主義 사회심리학이 미국에 전너와서 Lewin의 제자들인 Cartwright, Festinger, Kelley, Schachter 등에 의하여 계승되면서 사회심리학은 당시 미국의 思想的 배경의主流를 이루고 있던 經驗主義의 틀로 변모되어 간다. 이것은 연구가 假說演繹的인 절차와 실험적 방법에 의하여 수행됨을 의미한다(이에는 당시 미국의 심리학을 주도하고 있었던 Hull의 영향이 크다). 사회심리학은 경험적, 기계적, 수량적, 규범적, 도구적으로 특징지워지는 실험심리학, 좀 더 根源的으로는 자연과학을 모방하여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Bruner & Allport, 1940).

심리학이 그 生成初期에 자연과학, 그 중에서도 특히 物理學의 발전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연구방법을 模倣하려고 노력한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심리현상의 연구에 假說檢證을 목적으로 하는 통제된 실험 방법을 고집함으로써 방법론의 탄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심리학에서 가설검증적 실험절차를 사용하는 데 대한 비판은 다음 세갈래로 集約될 수 있다.

첫째, 실험적 방법이 사회현상의 연구에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실험연구가 가능한 사회현상들이 제한되어 있으며, 실험실에서의 再現은 흔히 현상의 歪曲을 가져오고, 실험과정에서 여러가지 artefacts의 개념이 가능하며, 속임법(deception)의 사용에 따른 倫理的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지나치게 현상을 單純化하여 설명하거나 전혀 常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발견이 대부분이어서 현상의 理解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들 비판들에 대해서는 실험심리학 내에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발견된다. 실험절차에서의 現實感의 강조(Carlsmith et al., 1976), 실험장면을 固有한 사회장면으로 취급하여 그 力動的 장면을 이해하려는 노력(Rosenthal, 1966), artefacts에 대한 統制技法의 발달 및 被驗者の 권리에 대한 意識의高潮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실험실에서 再現되는 현상간의

一致性 여부, 그리고 연구가 意味있기 위해서는 어떤 次元에서 어느 정도의一致가 요구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內的으로 연관된 구조를 가진 현상을 獨立된 變因들로 분할하여 연구할 수 없다는 Harré(1979)의 주장은 사회심리현상의 실험연구에 悲觀的인 전망을 제시한다.

둘째, 사회심리학에서의 假說檢證은 상당한 범위의 寶賣성과 自由度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 절차에 따른 지식의 축적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Gergen(1982)에 의하면 행동의 관찰과 이론적 陳述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不明確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이론적인 構成概念에 대하여 無數한 道具的 定義가 가능하며 어떤 定義를 선택할 것인가는 거의 연구자의 任意에 가깝다. Gergen은 사회적 인정욕구를 측정하는 문항이 自慢心, 内內심, 內的統制의 知覺, 적개심 등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Milgram(1963)의 실험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실험자에 대한 신뢰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Mixon, 1971). 이와같이 실험조건 및 그 결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假說의 경험적 평가는 자연과학에서처럼 嚴正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어떤 특정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발표된 것들이 흔히 다른 이론들에 의해서도 훌륭히 설명되곤 한다. Gergen은 衡平理論의 실험절차와 결과(Adams & Jacobson, 1964)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사회심리학의 다른 이론들(認知不調和理論, Schachter의 정서이론, 균형이론, 자존심이론, 단순노출이론, 사회비교이론)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을 때 학생들이 어려움없이 잘 해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假說이 檢證되거나 혹은 否定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이 自己矯正을 하면서 근본적이며 객관적인 지식을 축적한다는 것 (Popper, 1968)은 너무 단순한 發想이 아닐 수 없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론이 완벽한 경험적 증거에 의하여 검증되거나 부정되는 事例가 드물며 많은 경우에 時代의 思潮가 이론의 盛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째, 사회심리학은 자연과학보다는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한다는 깨달음이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論理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것은 사회심리학이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심리학의 다른 분야들(자연과학적인 성격이 강한 生理, 知覺, 學習 등이 그 主要分野들임을 주목할 것)과 方法論상의 同質性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

는 오히려 사회심리학의 正體확립에 장애가 되고 사회심리학이 충분히 ‘사회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가져왔다(Taylor & Brown, 1979). 또한 사회심리학의 자연과학 指向은 다른 사회과학분야들(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등)과의 乖離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회심리학의 孤立은 다른 사회과학들로부터의 知的 자극을 遮斷하는 폐쇄성을 낳았고 또한 사회과학들의 일반적인 性向인 사회 및 文化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 3. Universal의 追求

Gergen(1973)의 ‘사회심리학 연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제약을 탈피할 수 없다’는 선언은 universal의 추구가 연구규준이 되어왔던 사회심리학계에 큰 波紋과 더불어 많은 논쟁(Schlenker, 1974, Manis, 1975, Triandis, 1978)을 불러 일으켰다. Gergen의 주장은 과학이 사회행동에 갖는 영향과 歷史 및 文化에 따른 변화의 두가지 측면에 그 論據를 갖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첫째, 개인이 일단 사회심리학적 지식을 갖게 되면 해당 영역에 속하는 행동에 직면할 때 前에 습득한 지식이 행동을 의식적으로 歪曲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며 둘째, 사회행동은 時代와 文化에 따라 변화하는 行動傾向性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심리학적 지식은 歷史와 文化의 制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험자가 同調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실험실에서 同調現象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Asch(1951)의 同調效果는 文化가 다른 영국의 대학생들에게서는 검증되지 않았던 것이다(Perrin & Spencer, 1981).

Gergen의 첫번째 관찰은 인간과 사회심리학적 지식 간의 反省的 關係로 귀납된다(Semin & Manstead, 198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反省的 능력의 인정은 사회심리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反省的 능력을 무시한 사회심리학의 존재의 非合理性를 보여줄 따름이다. 실험심리학적 방법은 개인에 대한 모든 事前知識을 무시한 채로 출발한다. 왜냐하면 피험자 개개인에 대한 지식은 실험의 수행에 偏頗(bias)를 가져올 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사회심리학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는지는 보통 事前에 알려지지 않으며 만일 실험 후의 면접에서 발견된다면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의 출발을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 가치관, 성격 등의 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文化的이며 主體的인 인간의 사회행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면 사회심리학적 지식이 관련된 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歪曲因子로서가 아니라 연구 속에 이미 受容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Gergen의 universal의 否定은 아마도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universals'에 대한 懐疑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筆者는 universal에 대한 追求는 두가지 側面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universal의 存在에 대한 신념과 추구는 과학 일반적인 것으로 그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고 둘째, 그러나 universal의 추구가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사회심리학 연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심리학이 'sophomore의 심리학'이라고 불려질 만큼 특수한 文化小集團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는 처지에서 이 小數(보통 20~30명)의 文化的으로 偏頗된 개인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universal 云謂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째는, 만약 universal이 존재한다면 어떤 文化集團에서도 존재할 것이므로 集團의 文化的 偏頗性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에서 밝히려는 universal은 흔히 심리적인 構成概念들 간의 관계로서 이 構成concept들은 道具的 概念들로 변환하였을 때 비로소 연구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道具的 概念화가 文化的 實現으로서 文化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 까닭에 文化的 理解가 先行됨이 없이 可視的인 행동의 盲目的인 관찰만으로는 해당 文化에 意味를 갖는 universal은 그 存在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함정은 하나 혹은 小數의 실험연구(혹은 相關研究)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universal로 간주하는 위험이다. 이것은 外的妥當度의 문제로서 충분한 數의 文化集團을 標集하여 수행된 比較文化的 연구의 뒷받침이 없이는 모든 文化圈에의 一般化는 正當化될 수 없다.

## II.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接近들

지금까지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正體를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요소들(機械論의 人間觀, 自然科學의 模倣, universal의追求)을 밝히고 그 문제점들을 議하였다. Harré(1972)에 따르면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전통적 사회심리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 (i)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自動的으로 가치있고 신뢰로운 과학적 지식을 산출하지 않는다.
- (ii) S-R 및 S-O-R paradigm은 단지 객관성의 환상만을 산출한다.
- (iii) 동물 및 실험연구는 대부분의 인간상황에 일반화 될 수 없다.
- (iv) 사회심리학은 그 주된 현상인 意味(meanings)를 배제하고 그 주된 행동산출양태인 인간의 行爲執行性(action agency)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심리학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代案的 方法의 제시없이는 전통적 paradigm에 대한 비판은 공허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소위 paradigm shift는 舊 paradigm의 결함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롭고 보다 건강한 paradigm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에서 새로운 方法論을 모색하는 흐름들은 대체로 영국의 Rom Harré와 프랑스의 Serge Moscovici 및 미국의 Kenneth Gergen 등으로 代表된다. 이들의 사회심리학에 대한 새로운 接近들을 차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 Harré와 Ethogenics

Ethogenics 혹은 ethogenic approach는 1972년 Rom Harré와 Paul Secord가 'The explanation of social behaviour'에서 사회심리학에 대한 자신들의 독특한 입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그嚆矢이다. Ethogenics는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에 회의를 가져왔던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有力한 代案으로서의 철학 및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注目을 받게 되었고 Harré의 主導아래 발전하여 (Harré, 1979, 1983, Harré et al., 1985) 오늘날 Europe에서 Moscovici(1984) 等의 社會表象(social representation) 연구의 提議와 함께 사회심리학 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대표한다.

Ethogenics(ethos+genesis)는 Harré에 따르면 사회행위(social action)의 發生機制를 탐구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생물학에서 실험실 내의 연구를 벗어나 자연생활에서의 生態에 초점을 맞추는 ethology가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행위의 연구도 실험실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수행되어야 한

---

\* 이 定義에 준거하여 ethogenics를 우리말로 옮기면 社會行爲發生學이 타당할 것 같다.

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ethology가 동물이 연구대상인 데 반하여 ethogenics는 인간이 그 연구대상이므로 인간과 동물간의 質的 차이를 인정한다면(이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ethogenic approach의 중심개념의 하나인데) 그 연구방법론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Harré는 주장한다.

Harré는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paradigm에 대한 代案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새 paradigm으로 提議한다.

#### (1) 人間의 擬人觀的 模型(The Anthropomorphic Model of Man)

인간의 擬人觀的 模型은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기계론적 人間觀에 대한 反對立場에서 출발한다. 이 模型은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人間(human beings)으로 취급한다’(Harré & Secord, 1972:84)는 선언 속에 要約된다. 이 모형에서는 인간이 동물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간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 목적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존재하는 다른 모든 system들(自然의 것인든 人工의 것인든) 보다 복잡성의 수준이 높으므로 인간보다 낮은 복잡성을 지닌 모형을 사용하여 인간을 연구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人間觀은 Kant의 哲學에 起源하는 Strawson, Hampshire 등 현대철학자들의 인간에 대한 定義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反省(reflexivity) 혹은 意識的인 自己省察과 言語使用의 두 가지 능력(power)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이 두 능력에 힘입어서 인간은 세번째 능력, 즉 意識的으로 역할(roles)을 수행하고 규칙(rules)을 따르고 계획(plans)을 수립하는 行爲의 執行者(agent of action)로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들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언급(commentaries) 할 수 있고 설명(accounts)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으로서의 사회심리학은 이와같은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고 活用함으로써 보다 훌륭히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Harré의 입장이다.

#### (2) 構造研究(Structural Study)의 選好

전통적 사회심리학에서 選好되는 變因研究(parametric study)는 Harré에 따르면 첫째, 진정한 의미의 變因들간의 因果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통계적 상관관계를 알려주는데 그치며 둘째, 많은 사회심리현상들이 변인들로 나누어 분석할 때 그 온전한 正體를 상실하는 等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ethogenics에서는 變因研究 대신 構造研究를 選好한다. 이 方法論에서는

사회행위를 관련된 變因들로 분해하여 그 관계를 연구하는 대신 배후의 全體構造를 탐색한다. 이때 연구자는 批判的 記述에 의하여 발견된 규칙적 pattern, 즉 產物(product)의 확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產物을 生成하는 機制, 즉 型板(template)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product와 template의例를 찾아본다면 생물학에서 有機體의 해부학적 구조(product)와 DNA의 구조(template), 그리고 언어학에서 수행(product)과 深層構造(template)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構造(structure) 혹은 template는 節制된 想像(disciplined imagination), 즉 模型(model)의 사용에 의하여 탐색될 수 있다. 模型의 사용을 통하여 未知의 구조(혹은 template)를 추정하는 방법론은 자연과학의 이론적인 연구에서는 보편적이다[그 古典的인 例는, 진화론에서 家內도태(domestic selection)를 source model로 하여 자연도태(natural selection)의 機制를 밝혀낸 것, Harvey가 혈액체계를 水力체계에 비유하여 모세관 현상을 추정한 것, virus가 관찰되기 이전에 bacteria를 source model로 하여 그 機制를 탐색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특히 행동주의)에서는 논리적 실증주의의 영향 때문에 흔히 비판적 기술 단계에서 설명을 멈추고 더 이상 추구할 지식이 있다는 것을 否定한다. 그 이유를 실증주의적인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Harré는 오히려 진보된 자연과학에서는 模型을 사용하여 未知의 因果機制를 추론하는 방법론을 擇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 (3) 연구단위로서의 行爲(action)의 강조

Ethogenics에서는 모든 행동을 behavior로 通稱하는 전통적 심리학과 달리 behavior, action, act간을 구별한다. 意圖的의 行動(목적을 지닌 행동-意識의 이든 無意識의이든)은 行爲(action)로서 사회심리연구의 분석단위가 되며 action의 신체적(물리적) 측면은 behavior로 호칭되고 action의 사회적 의미는 act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文書의 署名이라는 action의 신체적 동작은 behavior이며, 文書의 서명이 항복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act에 의해서이다.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연구가 behavior에 초점을 맞추고 physiological mechanism-behavior 혹은 behavior-action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회심리학답지 못하였음을 비판하면서 ethogenics에서는 action을 연구단위로 하여 그 설명(즉 意味)을 act에서 구하는 (즉 action-act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방향을 擇한다. 前者が 사회행동을 生理機制나 外的

자극조건으로 설명하는 還元主義者 혹은 행동주의자의 입장이라면 後者는 사회적, 문화적 이유(reasons)로 설명하는 사회과학자의 觀點이다. 이 두 입장을例를 들어 비교해 본다면,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을 행동주의자는 날씨, 교통형편, 건강상태 등의 요인들로 설명하려 하고, 사회과학자는 그 文化集團에 학생이 학교에 가야한다는 규범이 있는가의 여부(즉 해당 文化集團의 역할-규칙체계)로 설명하려 할 것이다. 사실상 학생이 학교에 가는 主된 이유는 文化的 규범 때문이지 날씨의 좋고 나쁨은(아무리 두 쳐치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영향을 미칠 때 름이다. Harré는 이 사회행위를 결정하는 主된 이유와 사소한 이유의 혼동이 전통적 사회심리학이 意味있는 발견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고 비판한다.

이상의 새로운 paradigm에 기초하고 있는 ethogenics에서는 전통적 사회심리학과 달리 特定方法論(例; 실험연구법)에의 執着을 止揚하고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多樣한 方法論의 폭넓은 적용을 권장한다. 따라서 方法論의 융통성은 ethogenics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거니와 Harré를 비롯한 ethogenist들은 사회행위의 簡形구조(template) 발견에 특히 설명분석과 에피소드분석 및 劇模型의 사용 등이 有用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이 행위의 執行者로서 역할, 규칙, 계획을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파악으로부터 출발하는 方法論들이기 때문이다.

설명분석(account analysis)은 Harré의 소위 'The open souls doctrine'에 근거한다. 이 原則에 따르면 '人間을 人間으로 취급할 수 있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言及(commentaries)을 비록 경험적 비판에 韓應하여 수정할 수 있기는 하나, 현상의 진실한(authentic) 보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에 의하여 설명분석에서의 기본자료는 행위자 본인의 설명이 된다. 이때 설명의 진실성(authenticity)은 절충(negotiation)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설명분석에서 절충의 표준적인 형태는 三人交涉(두 참여자와 第三者로 구성)이다. ethogenics에서는 絶對眞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설명이 원칙적으로 修正의 대상이 된다. ethogenics는 행위자 본인의 체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상학(phenomenology)과 일치하나 현상학에서 개인의 체험을 원칙적으로 主觀的이며 他人의 접근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

반하여 ethogenics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토대로 他人과의 결충에 의하여 수 정될 수 있으며(즉 客觀化될 수 있으며)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존재로 파악 한다.

Episode는 사회생활에서의 自然的인 段落(natural division)을 총칭한다. 현실생활에서 사회행위를 발생시키는 機制는 혼히 正當化시키는 맥락(justificatory context)에서 행위자가 제공하는 이유(reasons)로 표현되며 episode 분석은 그 발견을 돋는다. episode는 形式的(formal) episode와 因果的(causal) episode로 분류되는데, 前者は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明示的 규칙을 언급하는 것이고, 後자는 생리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機制를 동원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왜’라는 물음에 대하여 因果的 설명(즉 生理機制나 外의 자극조건에 의한 설명)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인간을 행위의 집행자로 파악하는 ethogenic approach에서는 행위자가 규범적인, 혹은 경당화시키는 맥락에서 제공하는 이유(reason)가 원인(cause)보다 행위의 설명에 적절하다고 간주한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episodes는 뚜렷한 각본(script)이나 원인이 드러나 있지 않은 소위 불명료한(enigmatic) episodes로서 사회심리학은 형식적 episode의 模型 위에서 그 불명료성을 해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Harré는 주장한다.

현대 사회과학에서 劇模型(dramaturgical model)을 사회행위의 연구모형으로 발전시킨 것은 사회학자인 Erving Goffman(1959)의 공로이다. Goffman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행위는 演技(dramatic performance)로서 사람들은 자신의 演技를 연극의 原理(dramatic principle)에 따라 觀察(monitor)한다. 따라서 사회행위의 분석은 이 연극의 원리에 준거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설명(accounts)도 마치 배우의 演技를 記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다. Goffman이 발전시킨 분석개념들의 예를 들면 style, performance, team, role distance等이다. 사회행위의 분석에 연극에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未知의 機制를 模型(model)을 이용하여 탐색하는 방법론의例이다.

Harré는 이상의 세 가지 연구법들에 덧붙여서 repertory grid, autobiography, ethnography 등이 새 paradigm에 따른 사회심리연구에 새로이 活用될 것이며, 또한 현재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 중 intensive design(個人 혹은 小集團 연구를 통하여 깊은 理解를 피하는 방법) 및 융통성있는 방법들(Q-sort, 자유질문지법, 자연관찰 및 참여자관찰 등)은 계속 有用할 것으

로 전망한다. ethogenics는 근본적으로 非數的(non-numerical) 연구법으로서 통계에 대한 의존은 감소되고(Harré는 통계적 방법이 硬直과 자기제약을 가져오며 分布에 대한 정보 외에는 현상의 설명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지적한다) 대신 構造의 數學的 분석(ethogenics는 마음과 행위의 構造的 속성을 탐구)——例를 들면 lattice theory나 topology 등——에 관심이 돌려질 것이다.

## 2. Moscovici와 社會表象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社會表象(social representation)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9년 Serge Moscovici와 Robert Farr의 主導로 Paris에서 열린 社會表象을 主題로 한 국제학술토의에서 비롯한다. Durkheim의 集團表象(collective representation)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이 극히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은 社會表象 개념의 定立者인 Moscovici(1984)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Moscovici는 1961년 'La Psychanalyse'에서 社會表象을 Durkheim의 '무시되고 있는 개념'으로 소개한 뒤 이어서(1973) '社會表象이란 그 자신의 논리와 언어를 가진 認知體系로서 단순히 의견, 心像, 태도들만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reality)의 발견과 구성을 위하여 그 자체의 이론과 지식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定義한다. 즉 사회표상은 '공동체가 행동과 전달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을 정교화하는 것'이다. Moscovici(1984)는 사회표상의 개념이 Durkheim에서 起源하지만 사회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학에서는 사회표상을 原子나 遺傳子와 같은 더 이상 축소시킬 수 없는 最小單位의 설명 도구로서 그 구조나 內的 力動을 다루지 않는데 비하여 사회심리학에서는 표상의 구조와 역동이 관심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심리학에서의 사회표상은 개념(concept)이 아니라 현상(phenomenon)의 지위를 갖게 된다.

Moscovici는 Durkheim의 集團表象이 과학, 종교, 신화, 時空의 양식 등 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思考, 감정, 신념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定義되어 사회현상의 분석에 전혀 有用치 못함을 비판하고 사회표상의 자격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첨가할 것을 제의한다. 첫째, 사회표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特定樣式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사회표상은(세계로부터 意味를 抽象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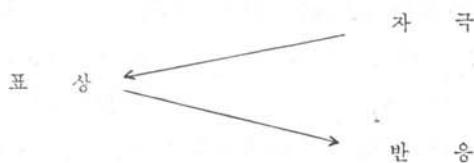
이 목표인) 개념(concepts)과 (세계를 意味있는 방식으로 再生하는) 知覺(percepts)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상은 表象=心像/意味(representation=image/meaning)로 파악되는데 즉 image를 idea에 同化시킴과 동시에 idea를 image에 同化시킨다. 따라서 신경증환자는 정신분석, Freud, Oedipus complex와 연합되어 있는 idea인 동시에 자기중심적이고 病的行動을 보이는 개인이라는 image 속에서 이해된다. 둘째, Durkheim은 表象을 靜의인 개념으로 간주하였는데 이것이 全的으로 틀리진 않다 하더라도 動的이며 순환적인 속성—즉 표상의 可塑性(plasticity)은 부인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사전에서 ‘신경증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그 단어에 수반되던 감정, 신경증환자와의 관계의 類型, 그를 판단하는 양식 등의 소멸을 가져온다. 要約하면, 古典的 의미에서 집단표상이 일반적 범주의 idea와 신념들(과학, 신화, 종교 등)을 지칭하는 설명도구로 사용되어 온 테 반하여 오늘 날의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들(소위 ‘新 Durkheim 學派’)에게 있어서는 이해와 전달의 특정양식(즉 현실 및 상식을 창조하는 양식)에 관계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記述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분석대상으로서의 현상인 것이다. 위와 같은 구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Moscovici는 집단표상 대신 사회표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표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Moscovici에 의하면 모든 표상의 목적은 親熟하지 않은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非親熟性을 특징짓는 것은 무언가 결여되어 있음 혹은 꼭 맞지는 않음 등의 느낌으로서 이들은 걱정과 위협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상의 행위는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의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外部로부터 内部로, 멀리로부터 가까이로 移動시키는 수단이다. 이 이동은 脫正常的인 것이 正常의 되고 未知의 것이 既知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맥락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이루어 진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가가 환자를 다루는 방식——醫藥을 사용치 않는 치료법——은 醫療에 대한 日常的인 관념에 위배되는데 이 낯선 현상을 定義하고 보다 친근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신분석을 告白(confession)에 비유시켜 본다. 그러면 그 개념은 신부와 참회자간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되고 정신분석에서 사용되는 자유연상의 技法은 告白장면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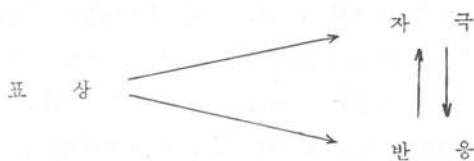
이 親熟化가 이루어지는 機制(즉 사회표상을 생성하는 기제)는 Moscovici

에 의하면 據點化(anchoring)와 對象化(objectifying)의 두 과정이다. 據點化는 친숙하지 않은 idea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 즉 idea를 平常的인 범주와 心像으로 축소시키고 친숙한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사람은 새로운 이론이나 낯선 사람의 행동을 종교적 가치척도에 관련시키려고 노력한다. 據點化는 分類와 命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未分類되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사물들은 낯설고, 존재가 확실치 않고, 위협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주며 評價나 記述(자신에게든 他人에게든)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既存의 범주 속에 분류하고 친숙한 이름을 부여하면 그때에 우리는 이 낯선 것을 표상할 수 있고 친숙한 模型의 複製도 再生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既存의 표상이 어느 정도 修正되기도 하고 표상되려는 사물은 더욱 修正되어 새로운 존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機制인 對象化는 친숙하지 않은 idea에 reality를 부여함을 말한다. 즉 불분명한 idea나 존재의 像性(iconic quality)을 발견하여 개념을 心像(image) 속에 再生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神을 아버지에 비유함으로써 非可視의이던 존재가 금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대상으로서 우리 마음에 보여 진다. 또한 복합(complex)이나 억압(repression)은 實體를 상정하기가 무척 애매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관계를 맺을 때 마치 그것들이 신체적 특징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형성된 image는 사회 속에서 순환되며 reality로서 받아들여 지는데 우리의 환경은 사실상 그러한 image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image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채택함에 의하여 환경에 대한 첨가와 수정을 수행한다.

그러면 사회심리학에서 사회표상은 어떤 위치로 파악되는가? Fodor(1975)를 인용하면, ‘…특정 자극이 어떤 반응을 유발할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유기체가 그 자극에 부여하는 內的 表象을 발견하여야 한다. 그러한 부여의 성격은 명백히 어떤 종류의 표상체계가 유기체의 인지과정을 중재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으나에 달려있다.’ Fodor의 입장은 표상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표상이 정보의 흐름을 외부세계로부터 우리에게로 중개함을 시사한다. 즉 아래 圖式에서 보듯이 표상은 실체원인(자극)과 구체적 효과(반응)사이를 중재하는 連結者이다.



그러나 Moscovici는 이 소위 '수정된 행동주의'의 입장을 배척하고 사회 표상의 이론이 취해야 할 입장을 명백히 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심리학에 관한 한 사회표상은 독립변인이며 설명자극'이다(아래의 圖式을 참조할 것).



각 자극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가능한 자극들 중에서 선택되고 무한히 다양한 반응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자극의 선택과 반응범위의 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image와 paradigm들이다. 따라서 정서반응이나 知覺, 合理化 등은 外的 자극 자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극에 대하여 분류한 image의 범주에 대한 그리고 그 자극에 부여한 이름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우리는 對象化되고 再創造된 자극에 대하여 受容의 순간에 반응한다. 엄마는 아기가 팔을 다른 사람 아닌 자기에게 내뻗고 있음을 보고 이미 미소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미소가 아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不可缺함을 인식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회표상은 자극의 성격과 그것이 유발하는 반응을 다같이 결정한다.

사회표상의 연구는 Moscovici에 의하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 방법론적 원칙들을 따르고 있다. 첫째, 사회에서 日常的으로 교환되는 對話표집들로부터 재료를 얻는다. 대화를 통하여 consensual society\*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 Moscovici는 consensual universe(合議世界)와 reified universe(物的世界)를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consensual universe에서는 사회가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창조가 일어나고 意味와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목소리를 가졌으며 인간처럼 활동하고 반응한다. 즉 인간이 모든 사물의 척도인 세계이다. 이에 비하여 reified universe에서는 사회가 경직되고 불변하는 실체들의 체계로 변형되어 個性에 무관심하고 正體가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자신 및 그 창조물들(즉, 사랑, 관념, 환경, 활동 등)을 단지 고립된 대상으로만 파악한다. 즉 모든 사물이 인간의 척도인 세계이다. Moscovici는 reified universe를 이해하는 수단이 과학이며 consensual universe를 이해하는 수단은 사회표상이라고 규정한다.

사물이나 idea를 보다 친숙하게 하며 이해와 전달이 이룩된다. 따라서 대화는 사회표상을 형성하고 생명을 부여하여 사회표상이 그 자신의 생명을 갖도록 해준다. 둘째, 사회표상을 reality를 再創造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현상이나 사람들은 흔히 原資料(raw data)가 아니라 가공된 것, 즉 사회표상에 의해서 再創造된 reality이다. 이렇게 再構成된 reality는 대화나 환경 속에서 반복되는 동안 집단의 主觀性, 상호교섭의 변천, 時空 등으로부터 遊離되어서 자율성과 독립성, 지속성, 안정성을 갖게 된다. 셋째, 사회표상의 성격은 집단이나 집단의 image가 변화를 겪는 위기와 격변의 시기에 특히 잘 드러난다. 이때 사람들은 점점 친숙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커져서 보다 기꺼이 말하려 하고 image와 표현이 보다 생생해지고 집단기억이 자극되고 행동도 보다 자연스럽게 된다. 이러한 위기는 reified universe와 consensual universe간의 갈등 때문에 개념의 언어와 표상의 언어 사이, 과학적 지식과 상식적 지식 사이에 균열이 생겼을 때 특히 심하다(정신분석이론이나 자연도태설 등이 소개되면 初期가 그 좋은例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양식과 한 universe를 다른 universe와 再連結시키는 양식 등이 사회표상의 과정을 해명하는데 극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넷째, 사회 표상들을 정교화하는 사람들을 amateur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형성하는 집단을 약 1세기 前에 존재했던 amateur 학자사회의 현대적 模型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의 非公式的인 모임들, café나 club, 정치적 집회에서의 토론들의 성격으로 思考와 표현의 양식들에서 호기심, 사회적 연결등이 반영된다.

Moscovici는 사회표상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다음 네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사회표상의 연구는 단순히 감정적 수준으로부터 知的 수준으로 이동하는데 그치거나 前 혹은 反행동주의적이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 및 우리가 살고 있는 consensual universe의 상징적 측면을 탐구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회심리학이 추구했듯이 단순한 機制만을 골라서 이를 맥락에서 고집어 내어 조사하는 것은 잘못으로서 사회표상의 연구는 인류학과 정신분석학의 발자취를 따라 내용과 과정을 다같이 重視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와 分離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표상의 연구를 위해서는 觀察法에로 돌아가야 한다. 實驗法은 맥락으로부터 遊離시킬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의 연구에

는 가치있는 방법이나 우리의 언어 속에 저장되어 있고 복잡한 인간환경에서 生成되는 사회표상의 연구에는 적당치 않다. 민족학, 인류학, 아동심리학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온 관찰법이 사회심리학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방법간의 優劣의 비교를 떠나서 실험법의 專用이 가져온 한가지 중요한 결과는 사회심리학이 일반심리학과 排他的인 聯合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회과학(사회학, 인류학 등)과는 疏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찰법으로 되돌아간은 인간과학(human science)으로 归鄉함을 포함한다. 세번째의 함축된 의미는 記述의 강조이다. 전통적 사회심리학은 설명기제의 究明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data 수집에 소홀한 感이 있다. 그러나 과학은 현상을 記述하고 규칙성(regularity)을 발견하여 그에 근거하여 이론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관찰 및 정확한 data의 축적은 대부분의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사회표상의 연구에서는 표상의 구조 및 進化의 精密한 記述이 先行되어야만 理解와 說明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표상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시간요인(time factor)에 대한 注目이다. 사회표상은 본질상 역사적인 것으로 개인의 발달에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우리의 身體, 他人과의 관계, 正義, 세계등의 표상은 어린 시절부터 성숙으로 이르면서 진화해 가며 따라서 발달의 연구는 세계가 개념화되는 양식, 그리고 相異한 집단과 세대가 세계를 체험하는 양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觀點에서 成長의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간에 개념적인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前者는 아동의 사회심리학으로, 그리고 後者は 成人の 成長心理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兩者에서 모두 사회표상의 현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여기에 일상생활의 사회학의 측면들을 첨가함으로써 Moscovici는 Vygotsky(1962)의 이른바 ‘思考와 言語의 문제가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한계를 확장하여 역사적 인간사회학 즉 사회심리학의 핵심문제가 된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 Gergen과 社會合理主義

Gergen은 1973년 ‘역사로서의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as history)’이라는 논문에서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虛構性을 비판함으로써 1970년대初에 시작된 새로운 사회심리학 운동에 Moscovici(1972) 및 Harré(1972)와 더불어 主導的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그는 특히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방

법론을 지배하고 있는 metatheory로서의 경험주의(empiricism)의 獨善을 공격한다. 경험주의자들은 사회이론이 경험적으로 反證될 수 있고, 사회적記述이 脫價值的(value-free)일 수 있으며, 행동의 예언과 통제에 대한 사회의 능력은 假說演繹的 과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Gergen, 1982). 사회심리학 内에서의 경험주의자들(특히 논리적 실증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행동주의자들)의 주장의 虛構와 誇張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통적 입장의 사회심리학자들은 경험주의(따라서 전통적 사회심리학)에 대한 비판을 ‘代案 없는 불평’으로 驚倒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대한 Gergen의 답변은 비록 현재 만족할 만큼 정교화된 代案으로서의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지만 非경험주의적인 metatheory의 윤곽을 지닌 몇 갈래의 학문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Gergen은 이를 ‘反文化的’ 흐름들에 속하는 解釋學的 운동(hermeneutic movement), 辨證法(dialectics), 批判的 觀點(critical perspective), 社會行爲發生學(ethogenics) 등을 概觀한 뒤 이들이 아래와 같은 성격들을 共有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1)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의 知識：경험주의자의 입장에서 연구자는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된 대로의 세계를 본떠서 이론을 발전시키는 被動的記錄機에 불과하다. 그러나 새로운 흐름들에서는 연구자는 자신의 이론적인 렌즈를 통하여 연구하여야 할 사실들을 능동적으로 創出하는 존재이다. 사회이론은 사회행위에 意味와 意圖를 부여하며 따라서 資料依存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상황 혹은 시대정신에 의하여 성격이 결정된다.

2)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행위：전통적인 경향주의자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질서의 법칙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사회심리학들은 실험심리학에서의 색채지각의 법칙이나 생리심리학에서의 충동전달의 법칙과 같은 사회행동의 不變的인 법칙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흐름들에서는 사회행위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거의 無限한 變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어떤 特定時點에서의 사회질서는 따라서 광범한 사회적 合意의 산물이다. 공격적, 利他的, 현명한, 감정적 등으로 이름붙여지는 행위의 pattern들은 규칙이나 규범 혹은 관습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실제로 그러한 행위들은 보편적이며 不變의 법칙들보다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된다.

3) 사회적 지식의 역사적 相對性: 전통적인 경험주의자들은 과학이 축적되고 진보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틀린 이론들을 버리고 경험적 지원을 받는 이론들을保持하고改善하는 것이 이들의 바램이다.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假定들이 갖는 문제성은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다. 새로운 흐름들에서는 과학의 쟁점을 달리한다. 이들은 인간의 용통성에 대한 믿음과 인간행동의 규칙의 존적인 理解에 대한 신념을 共有하고 있다. 이러한 假定를 下에서 사회적 지식이 역사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어떤 특정 행동 pattern——행동을 해석하는 행위를 포함하여——은 역사의 변천에 종속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당시의 理解가 철저하다 할지라도 그 理解는 불확실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론에 活氣를 제공하는 연구: 과학적 축적에 대한 신념과 상응하여 전통적인 사회심리학 연구는 보통 사회자극과 반응 사이를 관계짓는 假說을 검증하려고 기도하며 그러한 검증절차를 통하여 現存하는 사실과 높은 정도의 합치성을 갖는 이론이 발견되리라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 했듯이 사회과학에서의 가설검증은 被驗者 및 연구자가 각기 거치게 되는 해석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主觀性(혹은 任意性)을 배제할 수 없고 사회적 지식의 역사적 상대성 등으로 미루어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설검증에 대한 비판이 곧 경험적 연구의 否定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흐름들에서는 경험적 연구에 다른 기능을 부여 할 것을 정의한다. 이 다른 기능이란 이론에 活氣를 불어넣는 것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자료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론적 입장의 생존력 (viability)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을 그 이론의 어휘들을 사용하여 해석하도록 권유하고 혼련시킨다. 이와 같이 새로운 흐름들에서 경험적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만 전통적으로 부여된 것과는 다른 역할이 강조될 따름이다.

5) 사회적 지식의 價值基盤: 전통적인 경험주의는 과학적 記述이 규범적偏向을 배제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假定한다. 연구자는 中立의 관찰자의 성격을 유지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 價值偏向없이 자연의 상태를 기록하고 實體들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흐름들에서는 반박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記述은 경험세계를 거울과 같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관찰자의 개념적 구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이론적인 설명은 文化的 개념적 合意에 포함되어지며 이런 식으로 이론은 좋은 나쁘든 사회를 변화시킨다. 더욱기 인간행위의 記述은 菲연적으로 意圖性(intentionality)의 假定에 의존하므로 행위에 의도를 부여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默示的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사회행위의 記述에 그 文化내의 記述的 용어들을 사용하는 한 불가피하다. 새로운 흐름들에서는 전통적인 事實-價值의 二分이 誤謬라고 공격한다.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價值, 理念, 理想 등이 지식을 만드는 영역에 適法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metatheory 内에서 情熱(passion)의 삶은 理性(reason)의 삶과 再統合된다.

Gergen은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자들의 입장과 새로운 흐름들을 특징짓는 입장간을 경험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철학간의 역사가 오랜 갈등의 현대에서의 再現으로 파악한다. 즉 사회심리학에서의 새로운 흐름들은 전통적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실험사회심리학에 대한 반발로 합리주의 철학을 指向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前者가 세계를 관찰자와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행동의 원인을 外的 환경에서 발견하려는 입장, 즉 外因의 설명(exogenic explanation)을 選好하는 입장인데 反하여 後者は 과학을 인간에 의한 構成으로 보며 행동의 원인을 인간 内部에서 찾는 입장, 즉 內因의 설명(endogenic explanation)을 選好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Gergen은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흐름들을 특징짓는 합리주의 性向과 전통적인 합리주의 관념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Gergen에 따르면 전통적인 합리주의 관념론의 무조건적인 受容, 즉 극단적인 內因的 觀點의 선택은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을 誤導해 왔던 논리적 경험주의에의 절대적 依存 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 현실(reality)을 오직 개인의 內的 혹은 개념적 구성의 산물로 파악해 버리면 공허한 唯我論(solipsism)에 빠지게 되어 지식을 설명하거나 他人에게 전달하는 능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대신에 Gergen은 새로운 흐름들에서 나타나는 합리주의의 성격을 社會合理主義(sociorationalism)로 命名하고 앞으로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이끌어 갈 metatheory로 삼을 것을 提議한다. 이 觀點에서는 知識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個人的 마음 속이 아니라 集合體(collectivity) 內이며, 知識을 生成하는 것은 個人的 內的 과정이 아니라 communication의 사회적 과정이다. 즉 合理性(rationality)은 社會的 交換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合理

主義者의 觀點에서는 知識은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방법론을 구사하는 선택된 직업의 專有物도 아니고, 神의 선물도 아니며, 遺傳子 구조의 산물도 아니다. 이 새로운 paradigm에서 知識은 共同의 創造(communal creation)이며 사회심리학 연구의 적절한 主題는 바로 이 사회적으로 共有하고 있는 知識을 찾아내고 사회적 지식이 획득되고 전달되고 변화하는 과정들을 밝혀내는 것이 된다.

### III. 한국에서의 사회심리학 연구의 방향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의 전통적인 paradigm과 이에 반발하여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흐름들을 각각 소개하였다.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이 機械論의 人間觀, 논리적 실증주의(넓은 의미에서 경험주의)의 철학적 기반, 실험연구(變因연구)의 選好, 인간행동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즉 universals)의 추구 등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면 새로운 paradigm들에서는 擬人觀의 人間模型, 합리주의의 철학적 기반, 構造(혹은 社會表象)연구의 選好, 文化的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의 사회행위의 理解 등에서 合意點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의 전통적인 방법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앞에서 Harré, Moscovici, Gergen 등의 觀點을 통하여 論議하였다. 要約하면 理論에 의하여 意味가 부여되지 않은 斷片的 資料의 축적, 실험적 방법으로는 사회행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批判, 他 사회과학들과의 communication의 결여, 文化에 대한 냉담 등이 전통적 사회심리학이 지니고 있는 否定的 側面들이다. 이를 負的 축면들을 강조하면서 그 代案을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흐름들은 逆으로 아래와 같은 點들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우선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비판자들이 말하는 소위 ‘사회심리학의 위기’는 크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의 數의 급속한 팽창과 認知不調和이론, 歸因이론등 有數한 이론들을 둘러싼 활발한 연구와 논쟁의 역사 는 전통적 사회심리학이 意味를 찾을 수 없는 공허하고 매력없는 분야가 아님을 응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에서 사회심리학 이론들이 자주 援用되고 있는 사실은 사회과학 내에서 사회심리학의 역할이 큼을 端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반박된다. 둘째, 전통적 사회심리학이 그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나 분석의 수준에 있어서 심리학의

다른 분야들과 同質性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새로운 흐름의 사회심리학은 많은 심리학자들에게 異質感을 준다. 새로운 흐름들에서는 심리학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험연구가 輕視, 혹은 배척되고 분석수준도 個人過程 보다는 社會와 個人 혹은 文化와 個人的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固定觀念的인 심리학의 모습과 달라 보인다. 실제로 새로운 사회심리학이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 등 他 사회과학들의 자극 속에서 형성되었고 (Durkheim, G.H. Mead, Saussure 등의 영향이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그 人間觀 및 方法論에서 전통적인 심리학자들 보다 오히려 사회과학자들과 가까운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사회심리학이 심리학으로서의 identity 상실을 비판하는 데 반하여 새로운 흐름들에 속하는 학자들은 사회심리학이 일반심리학적인 성격을 벗어나서 사회과학으로서의 identity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肯定的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많은 전통적 사회심리학자들은 새로운 흐름들의 연구를 개관하고는 방법론의 未熟, 경험적 연구의 활발치 못함, 연구결과의 些少性 등을 지적한다. 사실상 새로운 사회심리학은 전통적 사회심리학의 실험법과 같은 중심을 이루는 방법론이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등의 여러 연구법들을 대상현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모델의 사용, 관찰법, 記述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과학사회에서 보다 많은 共感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론의 개발과 精巧化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타당한 방법론을 사용한 意味있는 연구의 提示만이 새로운 paradigm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 아직은 minority이며 역사가 짧은 새로운 사회심리학이 방법론의 개발과 연구의 축적에서 미흡한 것은 一見 당연하거니와 때때로 연구의 意味가 些少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誤解에 기인한다고 본다. 새로운 사회심리학에서는 個個의 小集團연구에서 universal을 발견하려는 종래의 태도를 止揚하고 해당 社會 혹은 文化的 역할/규범체계나 社會表象을 찾아내는데 一次的인 목표를 둔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발견된 構造나 表象은 해당 文化와 社會의 틀 속에서 意味를 가지므로 universals에 비하여 그 발견이 些少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에서의 universal의 발견은 하나하나의 연구에서 完結되는 것이 아니라 多樣한 文化들에서의 수많은 연구들이 축적된 후 연구자의洞察을 거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심리학의 방법론 논쟁이 한국에서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살펴 보자. 우선 한국이 심리학의 수입국이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방법론 논쟁을 袖手傍觀하면서 우세한 흐름을 살펴 쫓겠다는 안일한 태도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다. 첫째는 심리학을 洋學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에서의 심리학의 역사는 꽤 깊고 현대에서의 학문전파는 거의 同時의 이어서 이제 한국도 심리학의 주변국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名分論이다. 둘째는 사회과학의 研究樣式이 文化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文化가 다른 他國에서 성장해 온 학문을 그대로 受容하는 데서 오는 어색함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을 응시하면서 Moscovici(1972)가 던져놓은 소감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가 그들을(미국의 사회 심리학자들) 읽고 이해하려 애쓰고 그들을 이끄는 원칙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종종 우리는 그들이 他人이며 우리의 체험이 그들의 체험과 부합하지 않고 인간과 현실과 역사에 대한 우리의 觀點이 그들과 다르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p. 18).

그러면 사회심리학의 방법론 논쟁은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사회심리학의 성격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혹은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을 사회심리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筆者의 생각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심리학은 보다 多樣한 出處로부터의 知的 자극에 노출됨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심리학의 역사를 약 20년으로 잡는다면 前半 10년은 도대체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사회심리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데 보냈고 後半 10년은 사회심리학의 실증과학적 방법론을 배우는데 소비하였다. 물론 여기서 사회심리학이라 함은 미국의 사회심리학만을 지칭하는데 이는 그동안 심리학을 主導해온 것이 미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 간에 실험 위주의 미국식 사회심리학에 대한 불만이 吐露되고 있었고 Europe에서의 새로운 사회심리학 운동이 1970년대 初부터 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觀點의 소개나 活用이 소홀하였음은 생각해 볼 일이다. 사회과학에서의 방법론의 평가가 옳고 그름 보다는 현상에 대한 적절성 정도에 의존한다면 우리와 文化가 다른 미국에서 발달한 방법론만을 맹목적으로 受容하기 보다는 각기

固有한 文化를 지닌 Europe에서 제시하는 觀點들에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사회심리학은 사회과학으로의 탈바꿈을 하여야 한다. Moscovici를 따라 사회에서 묻는 질문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사회심리학의 역할이라면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은 그 역할을 거부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과학(혹은 실증과학)을 指向하는 미국적 사회심리학의 영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그 결과는 사회심리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遊離, 다른 사회과학과의 交流의 斷絕, 사회심리학자의 사회에서의 역할의 중요성 하락 등 부정적인 面들이 많다. 이제 사회심리학은 G. Allport의 古典的인 自己制約의 定義에서 벗어나서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正體’를 선언하여야 한다. 사회심리학자가 일단 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가 갖추고 있는 방법론의 우월성 (Stryker, 1983)에 힘입어 다른 사회과학을 능가하는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국의 사회심리학은 한국의 文化 혹은 한국사회가 그 主된 관심대상이 되어야 한다. 보편적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 즉 universal의 발견이 하나하나의 小集團연구에서 성취되리라는 기대가 사회과학에서는 幻想에 불과함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이 흔히 생각하듯 보편적 인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류계층이라는 특정 文化集團에 속하는 인간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사회심리학자가 관심을 우리의 文化에로 돌릴 때 다음 두 가지 利點이 있다. 우선 사회심리학자의 우리 文化에 대한 참여와 공헌이 증대되고 둘째로 우리 文化에 관한 흥미있는 연구결과는 文化에 따른 차이 혹은 universal의 탐색에 意味있는 資料로 공헌하게 되므로 文化의 영향을 배제한 실험연구보다 오히려 과학사회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리라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가 文化를 연구한다는 것이 곧 사회학자들이 흔히 하듯 設問紙를 사용하여 특정 文化集團의 意識構造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리학이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방법론이 精巧化된 학문임을 감안하면 심리학자의 文化연구에의 참여는 연구의 精巧性과 理解의 깊이를 크게 振作시킬 것이다. Harré의 ethogenics와 Moscovici의 社會表象理論은 사회심리학자의 文化研究에 좋은 示唆를 던져준다. ethogenics에서는 사회행위를 발생시키는 template이 되는 역할/규범 체계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ethogenic 접근은 Argyle과 그의 동료들 (Argyle et al., 1981)의 多樣한 文化集團과 사회적 장

면에서의 역할/규범 체계를 밝히려는 시도나 Marsh et al. (1978)의 축구장에 서의 관중의 난폭한 행동의 template을 탐색하는 연구 등에서 경험적으로 실현된다. 또한 Moscovici(1976)의 사회표상으로 파악한 '정신분석'의 연구를 필두로 Milgram(1984)의 Paris市의 사회표상 조사, Jodelet(1984)의 身體表象의 연구 등은 사회표상의 경험적 연구의例들이다. 우리의 경우도 한국인의 사회행위를 지배하는 역할/규범 체계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사회표상(例를 들면 '民衆')의 형성, 변천 및 그것이 個人과 社會에 대하여 갖는 意味 등이 사회심리학자의 적절한 연구주제로 據論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심리학자의 文化에 대한 관심은 종래의 심리학 연구가 獨特한 個人(單一事例 연구법 및 個人差 연구법이 그 主된 방법론임)과 보편적 인간(실험 연구법이 그 主된 방법론임)의 두 모습에 국한되었던 것을 시정해 준다. 筆者는 인간의 사회행위의 충분한 설명은,

#### 社會行爲=普遍性의 표현+문화의 표현+個人의 표현

으로 파악되어 각 成分 및 成分들간의 상호작용의 충분한 理解위에서 비로소 접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는 우리의 文化的 遺產 속에서 인간을 理解하는 樣式의 존재를 찾는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런 觀點에서 傳統佛教나 性理學은 우리의 독특한 人間理解의 양식—즉 우리의 人間學으로서 再照明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의 學問圈에서 불교나 성리학이 白眼視되어 온 것은 심리학을 자연과학(실증과학)으로 파악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를 동양사람이 실증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으로서 파악되는 사회심리학에서는 불교나 성리학등 우리의 人間學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 하나는 사회심리학에 새로운 豈望을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가치이다. 사회과학에서 理論의 역할이 현상의 감추어진 부분을 조명하여 그 의미를 보다 풍요하게 함에 있다면 불교나 성리학의 관점은 변증법, 구조주의, 형태주의 등의例를 따라 인간이해의 새로운 방식과 개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둘은 우리의 인간이해의 양식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가치이다. 누가 얼마만큼 內向的이냐 外向的이냐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인간을 內向性—外向性의 분류체계를 통하여 바라보느냐의 여부이다. 이 인간이해의 樣式은 文化依存의 일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밝혀내기 위하여 우리의 文化(우리 現實에서의 文化 및 現實에 意味를 던져

주는 歷史 속에서의 文化)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불교나 성리학, 그리고 禮學 및 文化傳統 등은 우리의 獨特한 人間理解의 樣式으로 우리의 文化現實을 구성한다고 파악될 때 사회심리학자의 適法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言語도 사회행위의 主流를 차지하고 있으며 文化의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表現體라는 점에서 그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人間理解의 樣式을 밝힐 수 있는 通路를 제공해 준다.

## 참 고 문 헌

- Adams, J.S. & Jacobson, P.R.  
 1964 Effects of wage inequities on work qu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 19-25.
- Allport, G.W.  
 1968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Random House, New York.
- Argyle, M., Furnham, A. & Graham, J.A.  
 1981 Social situ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Asch, S.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ements, In H. Guetzkow (Ed.), Group, leadership and man, Carnegie Press, Pittsburgh, Pa.
- Boring, E.G.  
 1929 A histo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Century, New York.
- Bruner, J.S. & Allport, G.W.  
 1940 Fifty years of change in American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37: 757-776.
- Carlsmith, J.M., Ellsworth, P.C. & Aronson, E.  
 1976 Methods of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Addison-Wesley Reading, Mass.
- Fodor, J.A.  
 1975 The language of thought, Thomas Crowell Co., New York.
- Gergen, K.J.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1982 Toward transformation in social knowledge, Springer-Verlag, New York.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Anchor Books, New York.

- Harré, R.
- 1979 Social being, Blackwell, Oxford
  - 1983 Personal being, Blackwell, Oxford.
- Harré, R., Clarke, D. & Decarlo, N.
- 1985 Motives and mechanisms, Methuen, London.
- Harré, R. & Secord, P.F.
- 1972 The explanation of social behaviour, Blackwell, Oxford.
- Jodelet, D.
- 1984 The representation of the body and its transformations, In R.M. Farr & S. Moscovici (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Kuhn, T.S.
-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anis, M.
- 1975 Is social psychology really differ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 427-436.
- Marsh, P., Rosser, E. & Harré, R.
- 1978 The rules of disorder,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Mead, G.H.
- 1934 Mind, self &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ilgram, S.
-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371-378.
  - 1984 Cities as social representations, In R.M. Farr & S. Moscovici (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ixon, D.
- 1971 Behavior analysis treating subjects as actors rather than organism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1: 19-31.
- Moscovici, S.
- 1961 La psychanalyse, son image et son public,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 1973 Foreward, In C. Herzlich, Health and illness: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Academic Press, London.
  - 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M. Farr & S. Moscovici (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errin, S. & Spencer, C.
- 1980 The Asch effect- A child of its time?,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2: 405-406.

Popper, K.R.

1968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Harper & Row, New York

Rosenthal, R.

1966 Experimenter effects in behavioral research, Appleton-Century-Crofts, New York.

Scheler, M.

1928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Darmstadt.

Schlenker, B.R.

1974 Social psychology and sc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15.

Schutz, A.

1968 The self in social interaction, Wiley, New York.

Semin, G.R. & Manstead, S.R.

1983 The accountability of conduct, Academic Press, New York.

Skinner, B.F.

1948 Walden two, Knopf, New York.

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Random House, New York.

Stryker, S.

1983 Social psychology from the standpoint of a structural symbolic interactionism: Toward an interdisciplinary social psychology,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6), Academic Press, New York.

Taylor, D.M. & Brown, R.J.

1979 Towards a more social social psycholog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173-180.

Triandis, H.C.

1976 Some universals of 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 427-436.

Vygotsky, L.S.

1962 Thought and language, MIT Press., Cambridge, Mass.